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경쟁력 확보 서둘러야

광주 진곡 수소충전소 고장 운영 중단...수입산 부품 교체 늦어 광주·전남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등 활성화 대책 시급

광주-전남이 수소차-전기차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취약한 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계기로 수소차-충전소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미흡한 국산화를 높이는 한편, 전기차 산업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이와관련, "진곡충전소가 지난 2014년에 지어져 냉각기 고장 이력만 8차례에 이르고 다른 충전소도 수입산인 주요 부품 수급에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차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의 경우 현재 207대가 운영 중인 수소차도 올해 추가로 356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345대가 운영 중인 울산 등 경쟁 도시에 비해 미흡한 만큼 '수소차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은 2대의 수소차를 구입한 것 외에 올해 수 소차-충전소 구축 계획이 전무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차 인프라도 서둘러야=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기차 1447대 외에 올해 추가로 1074대를 보급하는 한편, 충전기도 운영 중인 1425개(급속 118개·완속 1307개)에 더해 616개(급속 51개·완속 565개)를 확충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수입산 부품 구입에 한달...국산화 시급=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산구 진곡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여태껏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소충전소 냉각기 파손에 따른 열교환기 부품 교체가 더디게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이용자들은 진곡 충전소 대신, 다른 1곳의 동국 복합수소충전소로 몰리

면서 충전하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는 충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용 수소차량 이용을 자제하는 공문을 관련기관에 보내고 발주와 운송하는데만 1개월 넘게 걸리는 수입산이 아닌, 국산제품으로 교체해 이번 주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율차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차-충전소 인프라 국산화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내 수소충전소의 경우 핵심 부품의 60% 이상이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면서 국내로 운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냉각기의 경우 최근 국산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장용기와 충전기 등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기차 인프라도 서둘러야=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기차 1447대 외에 올해 추가로 1074대를 보급하는 한편, 충전기도 운영 중인 1425개(급속 118개·완속 1307개)에 더해 616개(급속 51개·완속 565개)를 확충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1차 4014만 5899원 전달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1차 조성금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용섭시장, 성동욱 하이트진로 호남권역본부장. <하이트진로 제공>

광주·전남에도 '제로페이' 13곳 시범 운영

말바우시장·여수진남상가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춰

광주·전남에서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본 간편결제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가

지 낮춘 '제로페이' 시범 상가로 광주·전남 13곳을 지정하고 전국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각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 상가로 지정해 시범상가별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말바우시장 ▲조대장미의

거리 ▲금남 지하상가 ▲광주 양동 상권 ▲우산동 상권 ▲송정역 상권 등 6곳, 전남은 ▲여수진남상가(여수) ▲목포자유시장(목포) ▲광양중마시장(광양) ▲하당신도신 상권(목포) ▲풍덕동 상권(순천) ▲서교동 상권(여수) ▲삼도동 상권(나주) 등 7곳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4만699개로, 이번 시범상가 운영에 따라 크

게 늘어날 것으로 증가부는 기대하고 있다. 증가부는 또 2월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결제시간을 줄이고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맹점 결제 단말기(POS)와 연동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상반기 중에 온라인 결제와 교통결제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월부터 광주~부산 프리미엄 고속버스 생긴다

광주~대구 운행횟수 1회 늘려 고객선문 결과 86% "만족"

오는 3월부터 광주-부산을 갈 때도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대구 간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횟수도 한 차례 늘어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버스 업계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고객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르면 3월부터 광주-부산 등 14개 지역에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신규 투입되고 기존 광주-대구(3회→4회) 등 7개 노선의 운행횟수도 확대된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고속버스 모바일 앱,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한 만족도, 신규 투입 여부 등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해 3319명 중 86%(2866명)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재이용 의사가 91%로 나타났다. 신규노선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3324명 중 88%(2924명)이



3월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내부

정적으로 답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21인승)는 지난해 2016년 11월 첫 운행 이후 현재 25개 노선에 총 154대가 운행 중이다.

160도까지 퍼지는 좌석과 옆좌석 가림막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주는 한편, 전 좌석에 개별 모니터가 설치돼 영화와 게임, 음악도 즐길 수 있다.

자동급제동시스템, 자선이탈 경고장치, 차량 자세 제어장치 등을 기본 장착하고 차량 내 모든 설비에 방염 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무사고 운전기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성도 높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대현 전 산은 수석부행장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고사

노조 '낙하산 인사' 부담

금호타이어 신임 대표이사로 거론됐던 이대현 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노조측이 '낙하산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를 내고 단체 행동까지 예고한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회사 안팎의 분석이다.

27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이 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최근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겠다고 회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행장은 애초 최대주주인 중국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와 채권단 등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정 사실이 전해진 뒤 경영 위기 상황에 전문 경영인도 아닌, 현장 경험도 전무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노조가 더블스타측에 반대 의견을 보내고 단체 행동을 예고하자 최근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시 더블스타측에 보낸 문서에 "제조업 현장을 잘 아는 인사로, 연구·개발·생산·영업·판매·구매 등 회사 내부

구성원을 어루만지고 무너진 해외영업망을 정상화할 자질과 덕망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행장이 산은의 과거 출자회사 대표로 옮기는 데 따른 부담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안팎에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이사회 일정을 감안하면 후임 대표이사가 조만간 내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4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차	
19 21 30 33 34 42	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012,970,100	5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64,310,419	52
3 5개 숫자일치	1,670,401	2,002
4 4개 숫자일치	50,000	105,717
5 3개 숫자일치	5,000	1,777,953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형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Passion (열정), Vision (비전),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